

삼성전자 창립 50주년 기념  
2019 Samsung Classic

SAMSUNG

# Dresden Philharmonic

드레스덴 필하모닉

지휘 미하엘 잔데를링      바이올린 율리아 피셔



2019.7.5 (FRI) 7:30PM

삼성전자 인재개발원 콘서트홀 SELC Concert Hall

©Markenfotografie

# SAMSUNG

## 시스템에어컨의 선택 기준도 '무풍'

직원들에게 무풍은 곧 집중이니까

삼성만의 무풍냉방으로

업무를 하는 동안

바람의 방해 없이 쾌적하게



### 삼성 무풍 시스템에어컨

자세한 제품 정보는 <https://www.samsung.com/sec/business/>에서 만나보세요.

\*무풍냉방 바람없이 더 건강하고 시원하게   \*공기청정 PM1.0필터 시스템으로 4계절 냉내 더욱 깨끗하게   \*균일냉방 냉기를 더 멀리 더 빨리 전달해 넓은 공간도 한동안   \*절전냉방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무풍냉방으로 전력 사용 걱정 없이

\*미국 냉공조학회(ASHRAE)기준 Cold Draft가 없는 0.15 m/s 미하의 바람을 무풍(Still Air)으로 정의합니다. \*공기청정은 올센 사항입니다.

## GREETINGS

눈부신 여름 햇살과 초록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7월입니다.

금일 삼성전자 인재개발원 콘서트홀은 깊이 있는 독일 정통 연주를 들려줄  
ドレス덴 필하모닉과 바이올린의 여왕 율리아 피셔의 연주로 채워집니다.

1870년 창설되어 15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드레스덴 필하모닉은  
귀족의 전유물이었던 클래식 음악을 대중화시키는데 앞장서며  
시민을 위한 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금일 공연은 특히 8년 동안 드레스덴 필하모닉에서 이상적인 독일 사운드를  
구현했다고 평가받는 상임지휘자 미하엘 잔데를링의 마지막 고별 무대로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깊습니다.

의미를 더하기 위해 잔데를링은 그의 대표 레퍼토리인 슈베르트 교향곡 8번 '미완성',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을 이번 투어의 레퍼토리로 선정하였고,  
그의 절친한 연주자인 21세기 여성 바이올린 트로이카로 꼽히는 율리아 피셔와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하며 아름답게 투어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0년 동안 쉴 틈 없이 달려오며 한 번쯤은 멈춰 서 내가 걸은 길을 뒤돌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터닝포인트가 될 마지막 한국 공연이 더욱 기다려집니다.  
이번 공연은 제 가슴 한 쪽에 분명 뜻깊은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 미하엘 잔데를링, <조선일보> 인터뷰 중

7월 한국 투어 공연을 마지막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예정인 미하엘 잔데를링.  
그와 오케스트라의 감동적인 마지막 시즌 투어를 감상하시며,  
중후하고 깊이 있는 독일 사운드를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 SELC Concert Hall (Samsung Electronics Leadership Center)

| 개관 2014년 11월 1일 | 위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로 59

| 객석 1,200석 (2층 678석, 3층 299석, 코러스석 223석)

| 부속시설 리허설룸, 개인 및 단체 연습실, 지휘자, 주연 및 단체 분장실 등



# Program

## PART 1

프란츠 슈베르트

Franz Schubert

교향곡 8번 b단조, 작품번호 759 '미완성'

[25min]

Symphony No. 8 in b minor, D. 759 'Unfinished'

I. 알레그로 모데라토 Allegro moderato

II. 안단테 콘 모토 Andante con moto

루트비히 판 베토벤

Ludwig van Beethoven

교향곡 5번 c단조, 작품번호 67 '운명'

[35min]

Symphony No. 5 in c minor, Op. 67 'Fate'

I. 알레그로 콘 브리오 Allegro con brio

II. 안단테 콘 모토 Andante con moto

III. 스케르초: 알레그로 Scherzo: Allegro

IV. 알레그로 Allegro

## INTERMISSION

[15min]

## PART 2

요하네스 브람스

Johannes Brahms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번호 77

[40min]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 77

I. 알레그로 논 트로포 Allegro non troppo

II. 아다지오 Adag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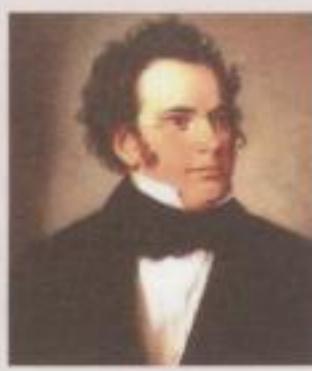
III. 알레그로 지오코소, 마 논 트로포 비바체

Allegro giocoso, ma non troppo vivace

(협연: 율리아 피셔 Julia Fischer)



©Markenfotografie



# Franz Schubert

프란츠 슈베르트 (1797-1828)

## 교향곡 8번 b단조, 작품번호 759 '미완성' (1822)

프란츠 슈베르트는 짧고도 넉넉하지 못했던 삶 속에서 경이롭게도 교향곡, 서곡, 무대음악 등을 포함한 관현악곡, 피아노삼중주, 현악오중주, 15곡이 넘는 현악사중주 등을 아우르는 방대한 양의 실내악곡, 바이올린 소나타, 20여곡의 피아노 소나타를 포함한 수많은 기악곡, 오페라, 미사곡, 합창곡, 그리고 600 편이 넘는 가곡(lied) 등을 남겼다. 슈베르트는 평생 그토록 존경했던 베토벤(1770-1827)보다 27년을 늦게 태어났음에도 겨우 1년을 더 살았을 뿐이다. 그는 특히 19세기의 낭만주의와 접목시킨 '가곡'이란 장르를 한층 높은 수준의 위치로 끌어 올렸으며, 꺾이지 않는 창작 의욕 덕분에 우리는 교향곡 분야에서도 빼어난 작품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초기 교향곡들에서는 당연히 빈의 거장들인 하이든이나 모차르트, 혹은 베토벤의 영향이 진하게 배어 있지만 이후의 교향곡들에서는 낭만주의 작품이 강하게 드러난다. 그중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대중적 인기도 많은 곡이 '미완성'으로 알려진 b단조 교향곡과 C장조 교향곡 '그레이트'(Die Grosse, The Great)이다. 이 2곡의 작품만으로도 슈베르트의 이름은 교향곡 분야에서 당당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하지만 안타깝게도 슈베르트는 두 작품의 실연을 듣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1822년 당시 슈베르트는 우울한 조성인 b단조로 4악장짜리 교향곡을 작곡할 생각이었던 듯한데 2악장까지 밖에 쓰질 못했다. 그는 첫 두 악장만 쓰고 3악장 스케르초는 1페이지의 충보와 트리오의 절반 까지를 피아노 스케치로 써둔 채 방치해 버리고 만다. 1823년 슈베르트가 그라츠의 슈타이어마르크 음악협회(Musikverein für Steiermark) 명예회원으로 추대되었을 때 그 고마움의 표시로 협회의 이사이자 친구인 휴텐브レン너(Anselm Hüttenbrenner)에게 이 두 악장의 교향곡을 보냈는데 어찌된 까닭인지 말그대로 그냥 잊혀진다. 이후 서랍 속에 묻혀 있다 이 작품이 작곡된 지 42년, 그리고 슈베르트 사후 37년 만인 1865년 빈의 궁정지휘자 헤르베크(Johann von Herbeck)에게 발견된다. 초연은 악보가 발견된 그 해 12월 17일 헤르베크에 의해 빈에서 이루어져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한다.

한편 본 작품이 미완성인 것에 더불어, 슈베르트는 과거 7번으로 알려진 E장조(혹은 e단조) 교향곡 또한 완성하지 못했다. 지금은 b단조 교향곡이 '미완성' 교향곡이라는 익숙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긴 하지만 이런 이유들로 인해 슈베르트 교향곡 번호에 대한 혼란은 계속된다. 8번 '미완성', 9번 '그레이트'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C장조 교향곡이 1840년에 출판된 것에 따라 7번 '그레이트', 8번 '미완성'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국제 슈베르트 협회가 1965년부터 정리한 신 슈베르트 전집(Neue Schubert-Ausgabe)에서는 E장조 교향곡이 연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번호를 박탈, 7번 '미완성' 및 8번 '그레이트'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슈베르트는 '미완성' 교향곡에서 통상적인 2관 편성에 3대의 트롬본을 추가시켜 고귀한 음색을 만들어 낸다. 당시로서는 표정이 풍부하고 시적 정서가 가득한 음악 세계를 담고 있으며, 고전주의에서 초기 낭만주의로 변모해 나가는 슈베르트 스타일로서 슬픔과 열망의 깊은 감정들을 표현해 내고 있다. 또한 곡의 비극적 악상은 슈베르트의 건강(이 시기에 매독에 걸렸다고 한다.)과 관련되어 있을 감정의 혼란

## PROGRAM NOTE

Franz Schubert

까지도 반영하고 있다. 브루크너의 마지막 교향곡이 3악장의 미완성으로 끝났지만 이어지는 악장의 필 요성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완전무결한 것처럼, 이 작품 역시 '미완성'이라는 제목과는 다르게 애호가들은 완벽함을 느낀다. 그만큼 이 두 개의 악장은 슈베르트의 짧은 생애와도 관련지어, 절망적 상황에서도 뚜렷한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지극히 높고 깊은 수준의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초기 낭만파 음악의 금자탑 과도 같은 작품이라 할 것이다.

**1악장:** 슈베르트의 이전 교향곡들과 비교해 보면 확실히 b단조의 비교적 간단한 소나타 형식의 1악장은 작곡기법의 거대한 진전이자 관현악적으로 강렬한 악장이라 할 수 있다. 첼로와 콘트라베이스의 최약 주 유니즌(unison, 같은 음 혹은 멜로디를 연주) 연주에 의하여 어두운 분위기로 개시하는데, 이 도입부 동기는 곡 전체, 특히 발전부에서 중요하게 나타난다. 이어서 바이올린의 16분 음표와 저음현의 피치카토(pizzicato, 현을 손가락으로 뜯어 연주) 위로 널리 알려진 선율이 오보에와 클라리넷으로 연주되는데, 이 첫 번째 주제에서 호른의 반향 역시 인상적이다. 바순과 호른의 짧은 경과부 후 당김음의 반주를 담고 첼로에 의해 온화한 주제가 포근하게 등장한다. 이러한 주제들을 변형, 발전시키며 곡은 극적인 흐름으로 나아가 때론 부드럽게, 때론 광폭하게 변하다 마지막에 이르러 묵직한 화음으로 마침표를 찍는다.

**2악장:** 1악장이 탄식과 분노였다면 E장조의 2악장은 정화된 아름다움이 가득하다. 1악장이 동기들의 발 전으로 진행되는 것에 비해 2악장은 서정성을 품은 선율의 흐름이 우선이다. 은은한 콘트라베이스의 피 치카토 위로 연주되는 호른과 바순의 화음에 의한 두 마디 도입 이후 제1바이올린이 순수함이 돋보이는 주제 선율을 울린다. 이 악장은 처음부터 141마디까지 두 번 반복하고 여기에 코다(coda, 곡을 끝내기 위 해 추가된 종결부)가 붙은 형식으로 볼 수 있는데 낭만적 정취는 물론 슈베르트의 수수한 대위법도 엿 볼 수 있다. 악상이 너무나도 아름다우며 곡은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조용히 마무리된다.

### Symphony No. 8 in b minor, D. 759 'Unfinished'

Franz Schubert wrote a countless number of operas, Masses, choral music, orchestral music, chamber music, solo instrumental music that are easily over 600 pieces. Schubert who was born 27 years later than Ludwig van Beethoven (1770-1827) admired Beethoven for his lifetime, but sadly he only lived one more year than Beethoven. Schubert was a prolific composer of Lieder, which is a combination of beautiful lyrics and music, and surely, he brought the Lieders to the highest standard that songs could have reached. Moreover, because of Schubert's uncrushable passion for music, we can come across with many outstanding symphonies as well. In his early symphonies, the influence of the First Viennese School (Haydn, Mozart, and Beethoven) is deeply ingrained, but later symphonies tend to show more faces of the Romanticism. Among the symphonies, 'Unfinished' in b minor and 'The Great (Die Grosse)' in C Major are renowned as the most outstanding and popular symphonies of Schubert. With these two symphonies alone, we could proudly enough say Schubert added a new page of music history. Unfortunately, Schubert passed away before hearing the symphonies live.

In 1822, Schubert thought of composing a four-movement symphony in gloomy b minor, but he could only write two movements. Its third movement 'Scherzo' is left with a single page of the full orchestral score and half of the trio section written in piano sketches. When Schubert was given an honorary diploma from the Graz Music Society (Musikverein für Steiermark), he sent first two movements to Anselm Hüttenbrenner who is a friend of him and a leading member of the Society as a token of appreciation, but the music was simply forgotten afterwards. The Unfinished Symphony had been buried in a drawer since then. It was finally found in 1865 by Johann von Herbeck 42

years after the piece was composed and 37 years after Schubert's death. Its premiere was in Vienna conducted by Herbeck on December 17 of the year the Urtext was discovered, and the concert was said to have been a huge success.

In addition to this unfinished work, Schubert also did not complete the E Major (or e minor) Symphony, known as the Seventh Symphony in the past. Although the b minor Symphony is now called 'Unfinished', the confusion over Schubert's symphonies' numbering still continues for reasons. Since the Unfinished Symphony is concerned for some people literally not completed or the publication date of each symphony can be out of order, sorting the symphonies by numbers could be confusing for people. On the other hand, The New Schubert Edition (Neue Schubert-Ausgabe) by the International Schubert Association from 1965 deems the Seventh Symphony in E Major impossible to perform thus deprived the number, which means the E Major is no longer the Seventh Symphony anymore. They define that the b minor Symphony we were talking about above is the Symphony No. 7 'Unfinished' and its following is 'The Great'.

In the Unfinished Symphony, Schubert added three trombones to the usual double wind composition in order to create a unique and noble tone. The sound is rich in expression and contains a musical world that is filled with poetic sentiments such as deep sadness and passion. Certainly, it is Schubert's style of transforming himself from Classical era to Early Romanticism. The tragic atmosphere of this Symphony reflects the confusion of emotion that may be associated with Schubert's health – he struggled with syphilis during this period. Just as Bruckner's last symphony has only three movements, this piece is not complete as well. However, it is certain that these pieces are musically complete that we don't feel the need for any ensuing movements. There are a few people who like to think this piece in relation to Schubert's short life, so that they reveal distinct beauty in such a desperate situation, and evoke an extremely high level of emotion out of it. Without doubt, the Unfinished Symphony is a monumental work of Early Romantic music.

**1st Movement:** Compared to Schubert's previous symphonies, the relatively simple sonata-form of the first movement (Allegro moderato) in the b minor Symphony is certainly a huge step forward in writing musical techniques in orchestral music. The sonata form is initiated in a dark atmosphere by the pianissimo (pp) in unison of the cellos and the contrabass, which is thought to be an important motive as the introduction of this entire movement especially in the development section. The widely known first theme of the oboe and the clarinet is presented over the sixteenth notes of the violins and the pizzicato of lower strings where the echo of the horns also notably feature. After a brief bridge of the bassoons and horns, a gentle cello theme appears softly. As these themes and melodies transform and develop, this symphonic drama goes on gently and wildly. At the end, a weighty chord puts a period.

**2nd Movement:** If we say the first movement is filled with deep sighs and outrages, the second movement (Andante con moto) in E Major is full of purified beauty. A musical structure or development is not as important as they are in the first movement, and lyrical flows take an important role in the second movement.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horn and bassoon playing two bars of beautiful chords with delicate pizzicato by contrabass, the theme melody by the first violins stands out for pureness. From the beginning to the 141st bar, the music repeats twice and the coda, a separate passage added to the end of main structure, follows after the repetition. Listeners also can feel not only the romantic atmosphere but also Schubert's modest counterpoint techniques. This entire Symphony is so beautifully written that it calms us down through the piece. Andante con moto ends quietly in a peaceful moment.



# Ludwig van Beethoven

루트비히 판 베토벤 (1770-1827)

## 교향곡 5번 c단조, 작품번호 67 '운명' (1808)

베토벤은 교향곡 3번을 완성하던 1803년에 본 작품을 구상했으며 1804년에는 구체적인 스케치까지 그려 넣었다. 이 시기부터 교향곡 5번을 완성하는 1808년까지는 베토벤 창작의 중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명성은 더욱 확고해지며 경제적 안정은 물론 창작력도 강렬해지던 때였다. 오페라 <피델리오>의 첫 판본, '열정' 소나타, 피아노 협주곡 4번, '라주모프스키' 협악사중주 등 여러 주목할 만한 걸작들이 탄생했지만 불행히도 타인과의 대화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청각장애가 악화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한편 다임 백작의 미망인으로 자신의 제자이기도 했던 요제피네 폰 다임(Josephine von Deym, 1779-1821)과의 사랑 때문인지, 1806년에 작곡된 교향곡 4번처럼 우아한 분위기의 곡들 또한 태어나게 된다. 하지만 연애가 소강상태에 이르면서 다시 격렬한 곡들에 착수하게 되는데, 이후 1807년에 이르러서야 교향곡 5번을 다시 쓰기 시작하여 1808년에 완성했으며, 그 해 12월 22일 안 데어 빈 극장(Theater an der Wien)에서 작곡자 자신의 지휘로 초연한다. 당시의 공연은 교향곡 6번, C장조 미사 중 '글로리아', '상투스', '베네딕투스' 악장, 베토벤 자신의 피아노에 의한 피아노 협주곡 4번, 합창 환상곡 등이 연주되었는데, 총 4시간에 이르는 거대한 공연이었다. 하지만 지독하게 추웠고 또한 아쉽게도 청중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교향곡 5번의 혁신성, 교향곡 6번의 긴 연주시간도 한 몫 했을 것이다.

교향곡 5번은 '운명'이라는 부제가 더욱 익숙하기도 하지만 이는 작곡가 자신이 직접 붙인 것은 아니다. 진위여부는 불투명하나 제자 쉰틀러(Anton Schindler)에 따르면 1악장의 동기의 의미에 대한 자신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운명은 문을 두드린다.'라는 베토벤의 대답이 있었다고 했을 뿐이다. 하지만 본 작품에는 청력의 악화 등 젊은 시절 베토벤이 느꼈을 좌절, 슬픔, 갈등 등 깊은 고뇌의 감정은 물론 이러한 '운명'을 극복하여 확고한 자아를 확립하려는 승리와 성공의 환희가 찬란하게 표출되고 있다. 여기에서 c단조라는 조성에도 주목해야 하는데, 이는 베토벤이 폭풍우가 몰아치듯 격렬한 분위기를 만들 때 선호하던 조성이었던 것 같다.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곡의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는 것은 음울한 c단조가 피날레 악장에서 강력한 C장조로 바뀌기 때문이다. 따라서 베토벤 개인의 상황은 물론 사회에 대한 비판적 감정까지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선택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향곡 5번을 이해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첫머리 4개의 음표, 이른바 '운명의 동기(모티프)'인데 이 동기가 전 악장에 걸쳐 변형되어 등장해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곡을 일관성 있게 엮고 있다. 짧은 동기들로부터 악곡을 쌓아올려 거대한 작품을 치열하게 구축했던 베토벤의 작곡 기법은 왜 그가 이후의 작곡가들에게 절대적인 규범으로 존경받고 있는지를 헤아릴 수 있게 해준다. 베토벤은 처음부터 고뇌 끝에 얻은 승리에 비중을 두었다. 이에 따라 1악장 첫 동기는 3악장에서도 변형되어 살아나고 또 4악장 재현부 직전에서도 나타나 전 악장을 단단히 결속시킨다. 또한 마지막 악장의 '환희'를 위해 3악장 스케르초를 4악장과 쉼 없이 연결하는 독특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기존의 2관 편성을 고수한 1, 2, 3악장과는 달리 4악장에서는 1대의 피콜로, 1대의 콘트라바순, 3대의 트롬본 등 악기의 종류를 증가시킴으로써 폭넓은 음향을 통한 과감한 피날레를 만들어 내고 있다.(참고로 트롬본이 오케스트라 합주

에 최초로 등장하는 곡이 바로 이 교향곡 5번이다.)

요약하자면, 본 작품은 청중을 압도하며 음악의 아름다움 위로 인간의 희로애락 감정까지 한치의 오차 없이 철저하게 표현해내고 있다. 완벽한 주제의 구성과 발전, 강력한 추진력, 악장 간의 유기성과 통일성, 충격과 긴장의 연속, 곡 전체를 관통하는 '암흑에서 광명으로' 혹은 '비극에서 승리로'라는 사상의 구현!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이자 고금을 통틀어 서양음악 중 가장 감동적인 작품인 베토벤의 교향곡 5번은 대중성을 넘어 단 하나의 음표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았을 정도로 음악사상 유례없이 완전한 곡이라 할 수 있다.

**1악장:** 1악장은 '운명의 동기'로 시작하는데, 이 동기는 c단조의 4음으로 이루어졌으며 전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음악 동기라 할 수 있다. 이어지는 2주제는 호른으로 시작하여 바이올린이 이어받아 부드럽게 연주하는데, 호른에 의한 주제 역시 바로 '운명의 동기'이며 2주제를 반주하는 저음의 움직임도 역시나 이 동기의 변형이다. 결국 운명의 동기를 고집스럽게 반복,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거의 1주제를 다루는 발전부에 이어 재현부로 들어가 잠시 오보에의 짧은 카덴차(cadenza, 솔로 악기가 연주하는 기교적이고 화려한 부분)에 의해 긴장이 이완되기도 하지만 다시 맹렬한 코다로 이어진다.

**2악장:** 두 주제를 사용한 변주곡 형식의 2악장이지만 각 변주에는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을 만큼 자유로운 변주로 악상의 변화가 정도하다. 1악장의 격렬했던 투쟁 후 이어지는 서정적이고 평화로운 악장이며 위안을 주는 듯 분위기가 부드럽지만 1번이나 2번 교향곡의 느린 악장과는 달리 극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은 매우 큰 차이이다.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저음 유니즌으로 연주되는 1주제와 클라리넷, 바순 등 목관에 의한 2주제가 나타나 차례로 변주된다, 경과부에서 클라이맥스를 이루는데 오케스트라의 팡파르에선 승리감을 고취시킨다. 다시 주제를 변주하다 마지막 코다로 이어져 크게 부풀어 오르며 악장은 마무리된다.

**3악장:** 1악장과 같은 조성인 3악장은 c단조의 스케르초로 3부 형식이다. 첼로와 콘트라베이스에 의해 으스스한 1주제가 물리고 호른에 의해 또다시 '운명의 동기'가 변형되어 취급된다. 대위법을 활용한 빠른 템포의 트리오는 쾌감을 주며 다시 1주제가 나타나 활약한 후, 팀파니의 셋잇단음표 악주와 함께 소리가 신비하게 고조되어 나간다. 점점 힘을 부풀려 폭발함과 동시에 종악장으로 쉼 없이 이어지는데, 4악장에 들어가기 직전 마치 영원히 4악장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극적 긴장감이 일품이다.

**4악장:** 드디어 도달한 C장조의 4악장에는 오직 고뇌에서 환희로 이어지는 절정의 승리만이 존재하며 절망을 뚫고 높이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찬란한 악상이 전개된다. 앞 3개의 악장에 없었던 피콜로, 콘트라바순, 3대의 트롬본이 가세하는 것도 큰 특징. 금관에 의해 유명한 1주제가 포르티시모(ff, 매우 세게)로 울려 퍼지며 바이올린에 의해 춤을 주는 듯한 G장조의 2주제도 이어진다. 일대 클라이맥스를 구축하며 3악장의 주제도 잠시 회상한 후 마치 3악장에서 4악장으로 이어지는 부분처럼 서서히 분위기가 고양되다, 폭발하는 금관이 1주제를 연주하며 재현부가 연결된다. 최후의 코다는 지금까지 나타난 온갖 동기들이 조합되어 속도는 빨라지고 표현을 고조시키다 흥분의 절정 속에서 혁명적인 피날레로 마무리한다. 마지막 악장은 그야말로 황홀하면서 환희에 가득 찬 순간들의 연속인 것이다. 이렇듯 결국 교향곡 5번은 전 악장이 유기적으로 단단히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본 작품의 진정한 의미와 매력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악장부터 마지막 악장까지 모두 경청해야 한다.

Beethoven

### Symphony No. 5 in c minor, Op. 67 'Fate'

Beethoven started planning this piece in 1803 while he was completing his Third Symphony. It is known that he even started a detailed sketch of this piece in 1804. From this period until 1808 when the Fifth Symphony was completed, a reputation of Beethoven grew solid and his financial security was settled strongly as well. Several notable masterpieces were born, including the first edition of Fidelio the opera, Piano Concerto No. 4, and Rasumovsky String Quartets, but unfortunately Beethoven was struggling with his ears that having conversations with others became unnatural to him. In the meantime, possibly because of his love for Josephine von Deym who was his student and Count Deym's widow, we could catch some romance and elegance in Beethoven's music like the Fourth Symphony written in 1806. However, as the love affair had reached the point where they could no longer stay together, the Fifth Symphony began to be rewritten and finished in 1808, and it was premiered on December 22 that year under the baton of the composer himself at Theater an der Wien. This legendary event included the first public performance of the Fourth Piano Concerto (the composer was soloist), several movements from the Mass, the concert aria Ah! Perfido, and the 'Choral' Fantasy. Reports indicate that it was not a good concert. The concert day was terribly cold and the reaction from the audience was not very nice either because of the poor performance. All we could guess is that the innovativeness of the Symphony No. 5 and the performance time of the Sixth Symphony would have been the demanding issues.

The Symphony No. 5 is probably more familiar with the nickname as the 'Symphony of Fate', but it is not given from the composer himself. The fact that this Symphony bears this epithet is above all due to Beethoven's student and assistant, Anton Schindler. When Schindler asked Beethoven about the opening motif of the Fifth Symphony, the composer is said to have replied: "This is the sound of fate knocking at the door." However, not only just fate but Beethoven's feelings of deep anguish, sorrow and conflict that he might have felt in his youth are well described the whole time, and these emotions establish joys of success in overcoming this 'fate' through the piece.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this Symphony is in C Major, which was maybe Beethoven's preferred key when creating a violent and stormy atmosphere in music. In particular, the mood of the Symphony changes drastically as the latter half of the piece goes on. As the gloomy and dark c minor changes to the powerful C Major all of sudden. Maybe Beethoven made it clear with the key changes that his personal situations as well as his critical feelings toward general issues were actively expressed.

The most important part in understanding the Fifth is the first four notes, the 'fate motif', which appears several times in different variations through the entire Symphony, consistently weaves the movements with tension, and creates a unity in balance. Beethoven's composition technique, which builds up from short motivations to a huge piece of work, allows us to figure out why he is much respected by later composers as an absolute norm. Beethoven weighs on the victory he had won after agonizing and failing over his problems. Accordingly, the fate motif of the first movement appears repeatedly in the third movement and last movement, and unite the movements together firmly as a whole. In addition, it makes a unique attempt to connect the third movement's Scherzo to the last movement without a break (attacca), and this transition is widely considered one of the greatest musical transitions of all time. Also, we see a lot more variety in orchestration in the last movement as well. One piccolo, one contrabassoon and three trombones, which is the very first time that the trombone and the piccolo join a symphony, create a bold finale through a wide range of color and volume.

To sum up, the Fifth Symphony overwhelms the audience overall and expresses the feelings of human such as joy and sorrow more than the pure beauty of music in a through manner. The perfection of composition and development of music, the organic unity of each movements, series of

shocks and tension, and the strong impressions coming from all of the above. 'From dark to light' or 'from tragedy to victory!' Beethoven's Symphony No. 5, the greatest cultural heritage of mankind and the most epochal piece of Western music in all time, is an unprecedentedly complete piece in music history to the point that every single note is meaningful and enjoys its own moments.

**1st Movement:** The first movement begins with a 'fate motif' which is made up of 4 notes in c minor and it is the most widely known musical motif all over the world. The next second theme begins with a horn and the violin takes over and also plays the 'fate motif' softly and the low-pitched accompanied the second theme is a variation of the motif too. In the end, 'fate motif' is continuously repeated and developed. Following the development section which deals with the theme of the first theme linked to recapitulation part and it is relaxed by oboe's short Cadenza (cadenza, an improvised and virtuosic passage played by solo instrument), but it leads to a dramatic Coda again.

**2nd Movement:** It is the second movement in the form of variations that apply two themes, but each variation is so clear and sophisticated that no limits are set. Although it is the lyrical, peaceful movement and comforting atmosphere following the intense struggle of the first movement, the dramatic elements are very different from the slow movement of Symphony No. 1 or No. 2. The first theme with a low-pitched unison of violin and viola is presented and the second theme which performed by woodwinds such as clarinet and bassoon also appears in a row. And it turns to the climax in the bridge featured orchestra's fanfare inspiring victory. After changing the theme again, it leads to the final Coda which goes up in a large scale ending the second movement.

**3rd Movement:** The third movement is the ternary form of Scherzo in c minor which is the same tonality as the first movement. The spooky first theme is played by the cello and contrabass and again by the horn is appeared as a variation of the 'fate motif'. The fast tempo trio using the counterpoint method is pleasant and once again the theme appears, the sound rises mysteriously with the weak sound of timpani's triplet. As the atmosphere swells up and explodes, it continues to the finale. A dramatic tension seems as if the fourth movement will never come right before the movement starts.

**4th Movement:** In the fourth movement in C Major, there is only a golden victory from anguish to jubilation, and appears a brilliant sound as if sun rise high through despair. Adding piccolo, contrabassoon and 3 trombones which were not present in the previous 3 movements is also a big feature. The well-known first theme featured by brass starts with Fortissimo (ff, to be played loudly) followed by the second theme in G Major which seems to be dancing by the Violin. Building a climax, the third movement theme is reflected for a while and the atmosphere gradually increases as if the section leading from the third movement to the fourth movement. The explosion of the brass plays the first theme and then, the recapitulation appears. The final Coda concludes with a revolutionary finale which is full of excitement with all the motifs that have appeared so far to speed up and strengthen musical expression. The last movement is simply a series of ecstatic moments. In the end, Symphony No. 5 is strongly bonded, so to discover the true meaning and charm of the piece, the audience must listen to it all from the first to the last.



# Johannes Brahms

요하네스 브람스 (1833-1897)

##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번호 77 (1878)

요하네스 브람스의 완전무결한 바이올린 협주곡을 이해함에 있어 작곡가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은 바이올리니스트, 작곡가, 교육자로 활약했던 19세기의 빛나는 거장, 헝가리 출신의 요제프 요아힘(Joseph Joachim, 1831-1907)이다. 그는 바이올리니스트 계보상 독일악파의 중심에 서있던 인물로 본 작품의 탄생과 보급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했다. 일찍이 젊은 브람스의 재능을 눈여겨보았던 헝가리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에두아르트 레메니(Eduard Reményi)는 브람스를 요아힘에게 소개해 주었는데 이는 1853년 하노버에서 있었던 일로, 당시 브람스는 20세, 요아힘은 22세였다. 이후 이들의 친분은 지속되어 평생 친구가 되었고 서로 음악적인 영향을 주고받았다. 한편 요아힘의 주선으로 1853년 뒤셀도르프의 슈만 자택에서 브람스는 로베르트와 클라라 슈만 부부와 만나게 되고, 이는 브람스의 음악세계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1878년 8월 잘츠부르크의 요아힘은 브람스로부터 여러 바이올린 악절이 담긴 편지를 받았는데 이를 통해 본 작품의 작곡에 착수한 것으로 여겨진다. 브람스는 바이올린 협주곡을 작곡할 때 요아힘에게 자문을 구했고 요아힘 역시 많은 조언을 주었다고 한다. 흥미로운 것은 요아힘이 1879년 1월 1일로 초연 날짜를 정한 것인데, 본디부터 신중한 성격의 브람스에게 이 제안은 탐탁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인지 4악장으로 구상했던 협주곡은 최종 3악장으로 완성된다.(이때 포기한 스케르초는 피아노 협주곡 2번에서 활용한다.) 따라서 본 작품은 신중의 신중을 거듭하여 무려 23년의 작곡기간을 거쳐 불혹을 넘긴 1876년 발표한 교향곡 1번, 작곡에 착수한지 불과 석 달 만인 1877년 완성하여 그 해 초연한 교향곡 2번 등에 이어지는 곡이라 할 수 있다. 초연은 예정대로 신년 첫 날에 열렸으며 미리 카덴차까지 작곡해 두었던 요아힘의 바이올린에 브람스의 지휘,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맡았다. 하지만 초연 이후 과정이 순탄치 만은 않았는데, 화려한 비르투오소였던 파블로 데 사라사테, 지휘계의 거장 한스 폰 벨로, 위대한 작곡가이자 연주가였던 핸릭 비에니아프스키 등은 곡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이후에도 브람스의 수정은 계속되었고 최종판의 인쇄는 1879년 짐록(Simrock) 출판사에서 이루어진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본 작품의 유사성을 짚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D장조, 전체 연주시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전형적인 소나타 형식의 장대한 1악장, 서정성 넘치는 2악장, 론도 형식의 경쾌한 3악장 등 닮은 외형 외에도, 두 교향악적인 협주곡에서 독주자와 오케스트라는 대등한 입장을 취하며 융화를 이룬다는 점, 독주자에게 모든 악장을 완주할 만한 뛰어난 기량이 필요하다는 점, 이에 더해 천재적 영감과 불굴의 노력에 의해 작곡된 두 작품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독주자의 정신적인 깊이와 통찰력이 요구된다는 점 등에서 놀랄 만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1악장:** 고전 소나타 형식의 1악장은 서주 없이 호른, 바순, 비올라, 첼로 등의 목가풍 선율(1주제)로 시작하는데 교향곡 2번과는 D장조란 조성도 같고 작곡 시기와 장소도 비슷하여 그 연관성이 느껴진다. 악상은 서서히 달아올라 곧 강렬한 합주가 이어지고 긴장감 속에서 독주 바이올린도 등장하여 분위기

를 고조시킨다. A장조의 2주제는 독주 바이올린이 매우 부드럽게 연주한다. 전개부는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가 이미 나타난 주요 주제들을 발전시켜 연주한다. 재현부는 1주제를 연주하는 관현악의 힘찬 합주로 시작하여 칸델차로 연결되며 1주제가 나타나는 코다를 거쳐 웅장하게 마무리된다. (1악장의 칸델차는 앞서 설명했듯 요아힘의 것이 가장 유명하며 바이올리니스트 루지에로 리치의 경우는 자신의 음반들을 통하여 부조니, 아우어, 이자이, 크라이슬러, 하이페츠, 밀스타인 등이 작곡한 16개의 칸델차를 소개하고 있다.)

**2악장:** 브람스의 영감으로 가득 찬 아다지오의 2악장은 서정성이 풍부하다. 시작부터 감미롭고 부드러운 (*dolce*) 오보에의 활약이 두드러지기에 음반에 오보에 주자의 이름이 따로 명시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점이 특별한 시도였는지 19세기 바이올린계의 거장 파블로 데 사라사테는 이 부분에 대해 “훌륭한 작품이란 건 부인하지 않겠다, 하지만 청중들이 오보에 선율을 들을 때 바이올린을 손에 들고 무대에서 있어야 하는 나는 얼마나 무미건조한가.”라는 언급을 했다고도 전해진다. 하지만 곡 구석 구석을 미묘하게 누비며 진정한 생명을 피어오르게 만드는 악기가 바이올린이라는 점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오보에의 긴 선율에 호응하여 독주 바이올린이 등장한 후 오케스트라 사이를 유유히 헤엄쳐 다니는 꿈결 같은 악장이지만 고상함이 넘쳐흐르는 와중에도 악상은 변화를 거듭하여 때로는 격정이 피어오르기 때문에 그만큼 독주자들의 뛰어난 기량과 정서가 요구되는 악장이기도 하다.

**3악장:** 마지막 3악장은 개성 강한 론도형식으로 악장을 지배하는 주제가 뜨겁고 격렬하다. 바이올린이 주주제를 연주하면 이를 전체 오케스트라가 받아서 반복한다. 여러 부주제들이 등장하지만 시종일관 론도 주제가 재등장하여 분위기를 환기시킨다. 잔뜩 고조된 피날레는 화려하며 작품의 위상에 걸맞게 잠시 숨을 고른 후 나타나는 강렬한 종지가 압권이다.

###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 77

When we think of Johannes Brahms complete Violin Concerto, the most important figure other than its composer is Joseph Joachim(1831-1997) from Hungary, a 19th-century brilliant virtuoso who has a big name as a violinist, composer and educator. He played a major role in creation and distribution of this work as a main figure of the German Violinist. Eduard Reményi, a Hungarian Violinist who had an early eye on young Brahms talent introduced Brahms to Joachim in 1853 in Hannover when Brahms was 20 and Joachim was 22 at that time. Since then, their friendship has continued becoming lifelong friends and exchanging musical influences each other. In 1853 at the Schumann's house in Düsseldorf, Brahms met Robert and Clara Schumann which has a huge impact on Brahms's musical interpretation.

In August 1878 in Salzburg, Joachim received several letters from Brahms containing several violin pieces which is believed to have begun composing the work. Brahms reportedly consulted Joachim when he composed the Violin Concerto and Joachim also gave him a lot of advice. What's interesting is that Joachim set the premiere date as January 1st, 1879. And the proposal would not have been desirable for Brahms who was very cautious in principle, so the concerto which he had envisioned as a four-movement composition is completed with the three movements in the end. (The abandoned Scherzo is utilized in Piano Concerto No. 2). Therefore, this piece is followed by Symphony No. 1 which was released in 1876 after 23 years of long-term consideration and Symphony No. 2 which was first released in 1877 just three months after he started to compose the work. The premiere concert was held on the first day of the New Year as scheduled under the baton of Brahms with Leipzig Gewandhaus Orchestra and Joachim who even composed Cadenza in ad-

## PROGRAM NOTE

vance. However, the situation was not easy after the premiere since Pablo de Sarasate, a colorful Virtuoso, Hans von Bülow, a prominent Maestro, and Henryk Wieniawski, a great composer as well as a performer giving negative opinion to the work. Considering those reviews, Brahms' modifications continued and the printing of the final edition took place at Simrock in 1879.

It is also meaningful to look through the similarities between Beethoven's Violin Concerto and this work. In addition to the similarities such as a massive first movement which normally appears in a typical sonata form occupied most part of the movement, D Major, a lyrical sound in the second movement, and a Rondo with cheerful atmosphere in the third movement, there are lots for more similarities. For example, soloist and orchestra are on an equal stance in the two symphonic concertos, and the fact that the soloist must have the capacity to achieve harmony which is also a need for outstanding skill to complete all the musical instruments considered as several of similarities.

**1st Movement:** The first movement of the classical sonata form starts with a pastorale-mood melody played by horn, bassoon, viola, and cello without an introduction. It is easy to find the similarity with the Symphony No. 2 since those 2 works are written in D Major and it is composed in a similar period and place, so they are very relevant. The musical motif is slowly heats up with strong ensemble soon followed and solo violins also appearing in suspense to strengthen the atmosphere. The second theme in A Major is played very gently by a solo violin. The exposition part mainly played by solo violin and orchestra develops major themes that have already appeared. In the recapitulation, it begins with a powerful ensemble of orchestral sound playing the first theme and connects to the Cadenza. It ends with a grand finale through Coda where the first theme appears. (As previously explained, Joachim's Cadenza is the most famous and violinist Ruggiero Ricci introduces 16 Cadenzas composed by Busoni, Auer, Kreisler, Heifetz and Milstein through his recording released at Biddulph)

**2nd Movement:** The second movement Adagio which is full of Brahms' inspiration is very lyrical. In some cases, the name of the oboe player is specified separately in the recording cover as the performance of the sweet and soft oboe sound from the beginning is remarkable. However, Pablo de Sarasate, a 19th century violin virtuoso mentioned that "I won't deny that it is a great piece of work, but how boring I am to stand on stage with the violin in my hands when the audience hears the Oboe melody." However, Violin is an instrument that subtly pounds every corner of the work and brings vitality for the music. It is a dream-like movement featured by solo violin after the long phrasing oboe flows in orchestra's tutti, but despite its nobility, this movement requires the Soloists' excellent skills and emotions since there are lots of musical changes.

**3rd Movement:** The last third movement is Rondo strong and dramatic theme dominates entire movement. When the violin plays main theme, the whole orchestra takes and repeats it. There are many sub themes but Rondo is re-emerging throughout the work evoking the atmosphere. The soaring finale is spectacular and the intense ending that appears after a short breath to match the work is overwhelming.

글: 송진명 (음악 칼럼니스트, 치의학 박사)

Johannes Brahms

SAMSUNG



아끼는 옷이라고  
아껴 입을 필요 있나요

옷감이 특별해도  
관리가 어려워도  
입고 싶을 때마다  
편하게 꺼내 입어요

앞선 사람들은  
이렇게, 에어드레서를 씁니다



크리스탈 미러

## 삼성 에어드레서

| 옷을 넘어 라이프까지 바꾸는 진정한 의류 청정은 오직 에어드레서 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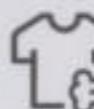
### 미세먼지 필터

미세먼지 필터로 옷에서 떨어낸  
미세먼지를 빠르고 강력하게 걸친합니다.



### 냄새분해 필터

제품 내부에 남은 작은 냄새 입자까지  
냄새분해 필터로 분해해서 없애줍니다.



### 제트스팀

각종 바이러스와 유해세균을 99.9% 살균하고,  
생활주름까지 간편하게 관리합니다.



### 제트에어

강력한 제트에어가 안감 속 미세먼지까지  
빠르게 털어냅니다.

\*99.9% 살균 - 바이러스 - 미생물 99.9% 제거, 미생물 99.9% 제거, 바이러스 99.9% 제거, 세균 99.9% 제거, 시험 방법 : 살균 코스에서 시험 조건에 모방시킨 바이러스에 대한 제거률을 미리함. 시험 소재 : 2cm x 2cm의 폰 소재, 모직 소재 - 고온 대학 천연암 사탕수수 허브과일 (예산) 식물류, 청결 세균인 황색포도상구균 99.9% 제거, 대량균 99.9% 제거 - 시험 방법 : 살균 코스에서 시험 조건에 주된 세균에 대한 살균률을 미리함. 시험 소재 : 10cm x 10cm 폰 소재 시험 소재 3개를 미리의 한정에 위치를 부착하여 시험함. 시험 대상균 : 홀바토도상구균, 대량균 - 국립환경기술원 (한국환경기술원) 검증을 받은 자사 상표 등록인 Intex. 검증을 받은 자사 상표 등록인 Intex. 상당수 수치는 실증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Dresden Philharmonic

ドレスデン フィルハーモニー

150년의 역사를 보유하고 있는 드레스덴 필하모닉은 독일 남동부 작센주의 주도인 드레스덴의 삼주 오케스트라로서, 드레스덴에 첫 콘서트홀이 생긴 1870년부터 드레스덴 필하모닉을 중심으로 도시의 문화가 발달했을 만큼 드레스덴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로 자리 잡고 있다. 경기 연주뿐만 아니라 오페라, 오라토리오 분야를 매우 뛰어난 관서로 오케스트라로 활동해오며 2017년 4월에 새로 신축된 쿠투어필라스트(Kulturpalast, 문화궁전)에 상주하고 있다. 2017년부터 피아졸 전대를 끝에 수석 지휘자로 활동 중이며, 1967년부터 1972년까지 수석 지휘자로 있었던 구르트 마주어를 포함하여 괴울 반 젠센, 카를 슈레히트, 하인츠 브가르츠, 헤르베르트 케겔, 마티 아놀스키, 라파엘 프리에크, 데 부르고스 등 여러 지휘자들이 악단과 함께했다.

다채로운 음악 색깔을 자랑하는 드레스덴 필하모닉은 낭만 래펴토리를 통해 독일 정통 '드레스덴 사운드'를 유지하면서도 바로크와 빙고전 음악, 현대 음악들을 통해 유연한 사운드와 음악 스타일을 발전시키왔다. 치명한 지휘자들의 지휘 아래 브람스, 차마콥스키, 드보르자크부터 라흐마트 슈트라우스, 칸데레즈키, 콜리거에 이르는 폭넓은 래퍼토리의 작품들을 연주한다.

드레스덴 필하모닉은 지금까지 수많은 작품들의 세계 초안 무대를 이끌었으며, 전세계의 유명 공연장에서 초청받아 연주하며 그들의 국제적 명성을 증명했다. 1997년부터 녹음한 광범위한 디스크그래피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하엘 잔데를링 지휘 아래 쇼스타코비치와 비토렌 교향곡이 페어링된 광범 사이클을 제작했다.

The Dresden Philharmonic can look back on a 150-year tradition as the orchestra of Saxony's capital Dresden. Even since 1870, when Dresden was provided with its first large concert hall, its symphony concerts have been an integral element of the city's cultural life. The Dresden Philharmonic has remained a concert orchestra to this day, with regular excursions into concert performance and, what's more, its home town is the state-of-the-art concert hall inaugurated in April 2017 in the Kulturpalast building at the heart of the historic district. The principal conductor of the Dresden Philharmonic since 2017 is Michael Sanderling. Besides Kurt Masur, principal conductor from 1967 to 1972, his predecessors have also included Paul von Kempen, Carl Schuricht, Hans Borgesius, Herbert Kegel, Marek Janowski and Rafael Frühbeck de Burgos, among others.

The musical and stylistic bandwidth of the Dresden Philharmonic is great. On the one side, the orchestra has managed to preserve its very own "Dresden sound" in the romantic repertoire. And on the other, it has developed a tonal and stylistic flexibility for the music of the Baroque and First Viennese School as much as for modern works. Important composers have also taken to its conductor's desk from early on, from Brahms, Tchaikovsky and Dvořák via Strauss through to Penderecki and Röder.

World premieres continue to play an important part in the programme in this day. Guest performances around the world attest to the high esteem enjoyed by the Dresden Philharmonic in the world of classical music. And the Philharmonic's discography to have accumulated since 1997 is also impressive. A new CD cycle directed by Michael Sanderling and released by the Sony Classical label creates a dialogue between the symphonies of Dmitri Shostakovich and Beethoven.

## Dresden Philharmonic

Michael Sanderling | Principal Conductor

### • Principal

#### 1st Violin

Prof. Rolf-Carsten Brömsel\*  
Heike Janicke\*  
Dalia Richter  
Christoph Lindemann  
Ute Kelemen  
Johannes Croth  
Alexander Teichmann  
Juliane Kettenschau  
Thomas Otto  
Theresa Hänzsche  
Deborah Jungnickel  
Xianbo Wen  
Olga Ceaseanov  
Serge Verheyen

#### 2nd Violin

Markus Gundermann\*  
Stanko Madic\*  
Christoph Lohmann  
Adele-Maria Bratu  
Seffen Goltzsch  
Dr. phil. Matthias Bettin  
Andreas Hoene  
Andrea Ditsch  
Constanze Sandmann  
Juhee Sohn  
Daniel Tauber  
Eunmi Kang

#### Viola

Christina Biwank\*  
Hanno Felthaus\*  
Maren Gilitschenky  
Beate Müller  
Seffen Seifert  
Steffen Neumann  
Andreas Kuhmann  
Joanna Szumiel  
Thomas Depen  
Yu-Ju Li

#### Bassoon

Daniel Brix\*  
Felix Amrhein\*  
Robert-Christian Schuster  
Selma Bauer

#### Violoncello

Prof. Matthias Bräutigam\*  
Ulf Prelitz\*  
Peter Wilmann  
Rainer Prommer  
Karl Bernhard von Stämpfli  
Clemens Krieger  
Alexander Will  
Dorothea Plans Casal

#### Horn

Michael Schneider\*  
Margherita Lilli  
Torsten Gottschalk  
Johannes Max  
Carsten Gießmann  
David Esteban Cortal

#### Trumpet

Andreas Jahn\*  
Csaba Kelemen  
Nikolaus von Tippelskirch  
Björn Kedenbach

#### Trombone

Matthias Franz\*  
Stefan Laßgbein\*  
Joachim Franke  
Peter Conrad

#### Flute

Kathrin Brix\*  
Cornelia Grohmann\*  
Tina Bäcker\*  
Léa Villeneuve

#### Oboe

Johannes Pfeiffer\*  
Undine Rohner-Stöle\*  
Prof. Guido Tilze  
Kaiel Kern

#### Clarinet

Prof. Fabian Ditt\*  
Daniel Hochstötter\*  
Prof. Henry Philipp  
Dittmar Trebeljahr\*

#### Administration

Maren Bülow  
Almut Placke

#### Orchestra Technicians

Gerd Krems  
Matthias Richter  
Gustav Missa

# Michael Sanderling

수석 지휘자 미하엘 잔데를링



2018/19 시즌 드레스덴 필하모닉의 수석 지휘자로 여덟 번째 시즌을 맞이한 미하엘 잔데를링은 베토벤 교향곡 2번과 파질 세이 교향곡 4번의 세계 초연 무대를 지휘하며 시즌의 개막을 열었다.

미하엘 잔데를링은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 뮌헨 필하모닉, 헬싱키 필하모닉,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룰루즈 카피톨 국립 오케스트라, 토론토 심포니, 도쿄 메트로폴리탄 심포니를 비롯하여 독일을 대표하는 방송 교향악단인 쥘른 방송교향악단, 북독일 방송교향악단 등 여러 악단을 객원 지휘하며 악단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암스테르담 로열 콘서트하우스 오케스트라와 파리 오케스트라에 데뷔했고, 가까운 미래에 베를린 필하모닉, 상트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 BBC 스코틀랜드 심포니와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예정이다. 특히 드레스덴 필하모닉과는 아시아, 남미, 미국,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 등 전세계를 정기적으로 투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9년 6월 녹음작업을 끝마친 베토벤 교향곡 전곡과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전곡 음반이 소니 클래식 레이블로 발매를 앞두고 있다. 또한 포츠담에서 필립 글래스의 오페라 <어셔가의 몰락>과 쥘른 오페라극장에서 프로코피예프의 오페라 <전쟁과 평화>의 새로운 프로덕션을 선보이며 오페라 지휘자로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베를린 출생의 미하엘 잔데를링은 오케스트라의 첼로 단원 및 솔로이스트로 뛰어난 경력을 쌓은 후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지휘자로 자리매김하며 포디움에서도 성공적인 경력을 쌓은 몇 안되는 아티스트이다. 1987년, 20세의 나이에 쿠르트 마주어가 이끄는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솔로 첼리스트로 활동했으며, 1994년부터 2006년까지 베를린 방송교향악단의 솔로 첼리스트로 지냈다. 솔로이스트로서 보스턴 심포니, LA 필하모닉, 파리 오케스트라 등의 여러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 협연 무대를 가졌으며, 드보르자크, 슈만, 쇼스타코비치, 프로코피예프, 차이콥스키의 첼로 작품을 녹음한 음반을 발매하기도 했다. 현재는 지휘자로서의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2000년 베를린 챔버 오케스트라와 함께 지휘자로 첫 데뷔 무대를 가졌고 이후 화려한 행보를 이어갔다. 전설적인 지휘자 쿠르트 잔데를링의 아들로 어린 나이부터 지휘에 친숙했던 미하엘 잔데를링은 점점 더 많은 역할을 맡았으며 2006년에 포츠담 카마 아카데미의 수석 지휘자 및 예술감독으로 임명되었다.

젊은 음악가들과 교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는 현재 프랑크푸르트 공연예술대학 교수로 활동하며 독일 국립 유스 오케스트라, 예루살렘 바이마르 유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융게 도이체 필하모닉, 술레스비히-홀슈타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정기적으로 협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3년부터 2013년까지는 도이치 현악 필하모닉의 수석 지휘자로도 활동했다.

지금까지 바흐와 헨델, 베토벤과 쇼스타코비치, 세계 초연 작품 등을 아우르며 수많은 작품을 지휘한 그의 활동을 통해 그의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엿볼 수 있다.

In the 2018/19 season, Michael Sanderling serves in his eighth season as Principal Conductor of the Dresden Philharmonic, which he opens with the 2nd Symphony by Ludwig van Beethoven and the world premiere of the 4th Symphony by Fazil Say, commissioned by the Dresden Philharmonic.

With the Gewandhausorchester Leipzig, the Tonhalle Orchestra Zürich, the Munich Philharmonic, the Helsinki Philharmonic Orchestra, the Konzerthausorchester Berlin, the Orchestre National du Capitole de Toulouse, the Toronto Symphony Orchestra, the Tokyo Metropolitan Symphony Orchestra and the German Radio Symphony Orchestras of WDR and SWR, Michael Sanderling is closely connected as guest conductor. He recently made his debut with the Royal Concertgebouw Orchestra Amsterdam and the Orchestre de Paris. In the near future he will conduct for the first time the Berliner Philharmoniker, St. Petersburg Phil-

harmonic Orchestra, the BBC Scottish Symphony Orchestra and the Tchaikovsky Symphony Orchestra of Moscow.

With the Dresden Philharmonic, Michael Sanderling regularly undertakes concert tours in Asia, South America, the U.S.A., Spain, the United Kingdom, Austria, Switzerland and Germany.

Under the direction of Michael Sanderling, a recording of all the symphonies by Ludwig van Beethoven and Dmitri Shostakovich has been accomplished in June 2019 in collaboration with SONY Classical.

As an opera conductor, he enjoyed success with Philip Glass' "The Fall of the House of Usher" in Potsdam, and with a new production of Sergei Prokofiev's "War and Peace" at the Cologne Opera.

Born in Berlin, Michael Sanderling is one of the few artists who, after an illustrious career as orchestra musician and soloist, has been able to achieve a highly successful career on the podium, establishing himself as one of the world's most appreciated conductors. In 1987, at the age of 20, he became solo cellist of the Gewandhausorchester Leipzig under Kurt Masur and, from 1994 to 2006, he held the same position in the Berlin Radio Symphony Orchestra. As soloist, he appeared with many of the world's most esteemed ensembles, including the Boston Symphony Orchestra, the Los Angeles Philharmonic and the Orchestre de Paris. He has made several CD recordings as cellist of works by Dvořák, Schumann, Shostakovich, Prokofiev, Tchaikovsky and others. However, it has been a long time since he last performed as a cellist.

Michael Sanderling first graced the conductor's stand at a concert of the Kammerorchester Berlin in 2000 – and caught fire. Having been familiar with the art of conducting from a young age, as son of the legendary Kurt Sanderling, Michael Sanderling took on more and more conducting roles, and was named the Principal Conductor and Artistic Director of the Kammerakademie Potsdam in 2006.

One of Michael Sanderling's passions is working with young musicians. He teaches at the University of Music and Performing Arts in Frankfurt/Main and regularly works with the Bundesjugendorchester (National Youth Orchestra of Germany), the Young Philharmonic Orchestra Jerusalem Weimar, the Junge Deutsche Philharmonie and the Schleswig-Holstein-Festivalorchester. From 2003 to 2013, he was the principal conductor of the Deutsche Streicherphilharmonie. His musical horizons encompass works by Bach and Handel, to Beethoven and Shostakovich, to world premieres, of which he has conducted many by now.

# Julia Fischer

바이올리니스트 율리아 피셔

다양한 재능을 두루 겸비한 아티스트로 잘 알려진 율리아 피셔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뿐만 아니라 피아니스트, 실내악 연주자, 바이올린 강사로서도 자신의 역량을 한껏 발휘하고 있다. 독일 뮌헨에서 태어난 율리아 피셔는 3세에 처음으로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으며, 피아니스트였던 그녀의 어머니 비에라 피셔의 권유로 몇 달 뒤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불과 9세의 나이로 뮌헨 음악 아카데미에 최연소 입학해 명망 높은 바이올린 교수 아나 추마 첸코의 제자가 되어 그와 함께 학업을 이어나갔다. 율리아 피셔는 12세 때인 1995년, 예후디 메뉴힌 국제 콩쿠르에서 1위에 입상하며 이른 나이에 음악가로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고, 그 후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 리카르도 무티, 에사 페카 살로넨, 유리 테미르카노

프, 프란츠 벨저 외스트 등 세계적인 거장 지휘자들과 협연하며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섰다.

율리아 피셔는 2008년 프랑크푸르트 알테 오페에서 피아니스트로서의 데뷔 무대를 갖기도 했다. 1부에서는 생상스 바이올린 협주곡 3번을, 2부에서는 그리고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하며 바이올리니스트와 피아니스트로서의 역량을 한 연주회에서 동시에 선보여 관객의 뜨거운 갈채와 무결점의 연주였다 호평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율리아 피셔는 2011년 알렉산더 시트코베츠키, 닐스 뮌케마이어, 벤자민 니페네거와 함께 현악사중주단을 창단했으며, 바쁜 연주 일정 속에서도 멤버들과 함께 유럽을 중심으로 실내악 무대에 꾸준히 오르며 실내악 연주자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Felix Broede

또한 율리아 피셔는 2019년 2월 베를린 필하모니에서 포츠담 캄머 아카데미와 그녀의 제자인 에바 차바로, 루이스 반도리와의 연주, 슈타트베르크 호수에서 열리는 음악축제에서의 정기적인 마스터클래스 진행 등 재능 있는 학생들을 꾸준히 양성하고 이끌며 그녀만의 음악적 삶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을 추구하고 있다.

율리아 피셔는 세계적인 음반 레이블인 펜타톤과 데카를 통해 수많은 음반을 발매하며 꾸준히 국제적인 찬사를 받아왔으며, 에코 클래식 상, 디아파종 상, BBC 뮤직 매거진 상 등의 다양한 음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근 그녀는 'JF클럽'이라는 자신만의 음악 플랫폼을 구축해 클래식 음악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행보를 통해 고품질의 오디오 및 비디오 서비스뿐 아니라 음반 신보 프리뷰, 그녀의 음악과 레퍼토리에 대한 고찰 등을 대중에게 선보이고 있다. 그녀가 연주한 이자이 6개의 바이올린 소나타, 프랑크 바이올린 소나타, 시마노스키 바이올린 소나타를 'JF클럽'에서 만나볼 수 있다.

키릴 페트렌코 지휘의 바이애른 슈타츠오페와의 협연(함부르크 엘브필하모니, 뉴욕 카네기홀), 빈 심포니의 상주 음악가로서 참여한 필리프 조르당과의 협연 등 성공적인 음악적 행보를 보이며 지난 시즌을 마무리했던 율리아 피셔는 오랜 실내악 파트너인 닐스 몽케마이어, 다니엘 월러 쇼트와의 유럽 투어로 2018/19 시즌의 시작을 알렸다. 이를 시작으로 올 초 런던 필하모니(지휘: 블라디미르 유롭스키)과 서울(인재원 콘서트홀 연주)-타이베이-베이징-상하이로 이어지는 아시아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바이올리ニ스트 아우구스틴 하델리히와 함께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대규모 독일 투어에도 참여한다.

힐러리 한, 재닌 얀센과 함께 21세기 바이올린계를 이끌어갈 현의 여제로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율리아 피셔는 연방 공로십자훈장, 그라모폰상, 독일 문화상 등 수많은 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1742년산 지오반니니 바티스타 과다니니와 2018년 필립 아우구스틴이 제작한 악기로 연주하고 있다.

One of the world's leading violinists, Julia Fischer is a versatile musician also known for her extraordinary abilities as a concert pianist, a chamber musician and a violin teacher. Born in Munich to German-Slovakian parents Julia received her first violin lessons at the age of 3 and her first piano lessons shortly after from her mother Viera Fischer. At the age of 9 she started studying with the renowned violin professor Ana Chumachenko, later becoming her successor. The first prize at the international Yehudi Menuhin Competition in 1995 was one of the milestones in her early career and she has since performed with top orchestras worldwide frequently working with renowned conductors such

as Herbert Blomstedt, Riccardo Muti, Esa-Pekka Salonen, Yuri Temirkanov and Franz Welser-Möst.

Julia Fischer starts the 2018/19 seasons touring Europe with her long-time chamber music partners Nils Mönkemeyer and Daniel Müller-Schott. She then embarks on a tour of Asia with the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 and Vladimir Jurowski performing in Seoul, Taipei, Beijing and Shanghai as well as with the Dresden Philharmonic and Michael Sanderling with concerts in Japan and Korea. She is joined by violinist Augustin Hadelich for an extensive tour of Germany with the Academy of St Martin in the Fields, an orchestra she frequently collaborates with. Highlights of the past season include concerts with the Bayerisches Staatsorchester under Kirill Petrenko at the Elbphilharmonie in Hamburg and New York's Carnegie Hall and a residency with the Vienna Symphony Orchestra and Philippe Jordan.

In 2011 Julia Fischer founded her own Quartet with Alexander Sitkovetsky, Nils Mönkemeyer and Benjamin Nyffenegger and continues to tour extensively in this formation. Her concert at the Alte Oper Frankfurt in 2008 marked her debut as a pianist: She performed the Grieg Piano Concerto in the second half of the concert, having played Saint-Saëns's Violin Concerto No. 3 in the first half. The performance is available on a Decca-released DVD. Teaching is another integral part of her musical life as she continues to nurture and guide young talent. In February 2019, she will perform together with her students Eva Zavaró and Louis Vandory with the Kammerakademie Potsdam at the Berlin Philharmonie. She regularly gives masterclasses at Musikferien at Lake Starnberg (Starnberger See).

Over the course of her artistic career Julia Fischer has released numerous critically acclaimed and awarded CD and DVD recordings, first under the Pentatone label and later under Decca. Breaking new ground in the classical music market, she has recently launched her own music platform, the JF CLUB, which offers exclusive audio and video footage, previews of her new recordings as well as personal insight into music and her work. The six solo sonatas by Eugène Ysaÿe, César Franck's Sonata in A Major and Karol Szymanowski's Sonata in d minor are all available exclusively on JF CLUB.

Julia Fischer holds numerous awards including the Federal Cross of Merit, Gramophone Award and the German Culture Prize. She plays a violin by Giovanni Battista Guadagnini (1742) as well as an instrument made by Philipp Augustin (2018).

Visit [www.juliafischer.com/club](http://www.juliafischer.com/club) and become a member of the JF CLUB!

# ドレスデン, 음악의 역사를 따라서

ドレスデン을 관통하는 엘be 강변을 거닐던 과테(1749-1832)는 아름다운 풍광에 매료된 나머지 ‘이곳은 유럽의 라스’라며 하늘을 내몰았다. 같은 엘be강의 물줄기를 지나지만 엘브 강하나니 흔히 들어선 철부르크와는 전혀 다른 고전적이며 고즈넉한 분위기다. 지금도 드레스덴의 명물 페퍼 오페라에서 공연 중인 간디아니의 *라라*를 들으면 이 빛이 그 ‘라라스’에 잠깐 들려 도시의 마경과 공기를 한 층 달아간다.

철학자 허브트(1744-1803)는 드레스덴을 ‘독일의 빈센트’로 칭하였다. 이탈리아 미란체가 균내상스의 심장부라인 드레스덴은 바로크건축이 꽂힌 도시, 촉발기 궁전과 성모교회는 그 화려한 역사를 대변해 준다.

## 비호로 번역 및 번역 취소

오늘날 독일에는 16개의 주가 있다. 그중 헤센도르프, 브란슈부르크, 헤센 등이 우리에게 익숙하다. 제포하고 절제정연한 경제학으로 독일로운 이곳들은 찬성적인 사회의 도시들이다.

보다 ‘심오한 독일’과 그 ‘감이감’을 느끼기 위해선 동쪽으로 가야한다. 그곳에는 작센주(Sachsen)가 있다. 폭넓은 문학적 전통의 보고(舊都)로 통하는 곳이다. 작센에도 주요 도시가 있다. 페니히슈타트(Peiningstadt)는 과거 작센군국의 수도였다. 과거에 자유로운 도시로 발전하여 시민문화를 꽃피운 라이프치히는 바흐를 기억하는 이들에겐 경지에서도 같다. 드레스덴은 현재 작센 주정부의 소재지, 체코와 경계가 맞닿은 동쪽에 위치해 있지만, 특별히 저마다 세계대전으로 거대한 영토를 상실했기 때문에 독일의 중심지로는 같았다.

ドレス덴 필하모닉과 드레스덴 슈만츠카펠레, 페퍼 오페라 힐튼과 유산이 있는 이곳의 서양음악사에 처음 등장할 때 함께 거론되는 작곡가는 하인리히 쉬츠(Hinrich Schütz, 1585-1672)이다. 우리에게는 페니 낯된다. 하지만 유럽에서 쉬츠는 베흐(1685-1750) 이전에 폭넓은 최고의 작곡가로 손꼽힌다. 쉬츠는 1615년부터 출판 드레스덴 군청에서 활동하다 사망했다. 츠빙거 궁전을 간판 숙과 군원을 한적히 걷다 보면 고요히 서 있는 쉬츠의 기념비가 나온다. 베흐 그곳으로부터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성모교회(Frauenkirche)에 쉬츠의 무덤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이들도 찾아온다.

## 18세기 음악의 중심지

쉬츠의 음악적 유산은 아우구스트 2세(제2위 1694-1733)를 만나 꽂힌다. 그는 ‘경건왕’으로 폴란드를 통치했지만, 고국인 작센에선 ‘비로크’의 왕이었다. 그는 1710-1718년에 츠빙거 궁전을 지었고, ‘경건한 음악주제’로 드레스덴 궁중음악을 발전시켰다. 아우구스트 3세도 그 비통을 이어갔다.

이들은 도메국장을 갖고, 수수한 음악가를 불러들였고, 젊은 음악가들을 이탈리아·모스트리아·프랑스로 유학 보냈다. 크반츠(1697-1733), 하세(1699-1783), 하마니(1683-1729), 파센(1687-1755) 등이 이러한 차량문을 통해 성장하며 음악의 첫걸음을 드레스덴에 남겼다. 베델디(1678-1741)와 텔레만(1681-1761)도 이곳을 거쳐 갔다. 아우구스트 2세는 오늘날 구·신시가지를 있는 다리 위에 황금동상을로서 있다.

영광에 순간만 걸은 것은 아니었다. 츠빙거 궁전(1740-1745)과 나폴레옹(1769-1821)의 행운 풍채 등으로 인해 침체기도 겪었다. 하지만 드레스덴은 이탈리아 기악음악을 중부와 북부 독일로 소개한 첨병 기자였으며, 이를 토대로 19세기 남만주의 기악음악의 발전을 이루는 중심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음악사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있다. 독일의 역사관이 철학ティ아 19세기에 역사 기술(歷史)은 독일 민족주의적 경향이 최우선시 되었다. 따라서 이탈리아의 문학을 감상이 불미었던 드레스덴의 음악적 의미는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 라이프치히의 바흐를 중심으로 독일의 음악사가 서술은 이유이기도 하다.

## ドレス덴 음악성지, 페퍼 오페라

마술 마니아는 츠빙거 궁전의 미술관으로, 음악 마니아는 페퍼 오페라로 향한다. 낮은 마을 순례의 시간이고, 밤은 음악의 시간이다.

페퍼 오페라(Opernhaus)는 츠빙거 궁전 바로 옆에 있다. 1548년에 완공되어 400년이 된 드레스덴 슈만츠카펠레와 한국인 최초의 솔리스트 우승수 이남준이 단둘이서 찾는 페퍼 오페라 텔레가 상주하는 곳이다. 가장 설계자는 고트프리트·겔마(1803-1879). 일반적으로 ‘슈만츠 오페라’ 혹은 ‘라인강’이라 불리는 독일극장을 찾기 건축가의 이름을 내세운 듯이 독특하다. 그 정도로 강과 특유의 양식이 녹아 있다. 초기 르네상스와 바로크의 양식이 고착화되며, 그 뒤에는 그리스·고嚷·안식과

자 가미되어 있다. 1841년 개관작은 베르비 오페라 《요아리안티》, 그는 1817년부터 7년간 츠빙거 궁전과 함께 궁정오페라의 불灭 감독을 지낸 바 있다. 어느 국장이나 그럴듯 행피 모리도 페파의 저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1859년 황제로 1871-1878년 재간축이며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 제2차 세계대전 시에도 유지되고 다시 베를을 찾아 올렸다.

독특하게도 티겟베스는 국장 외부에 설치되어 있다. 정문에서 티겟베스로 걸어가는 2분 동안 모른관에는 츠빙거 궁전의 미술관이, 정면에는 궁정교회(Hofkirche)가 눈앞에 들어온다. 올중한 건물이 나를 향해 빛나는 ‘광활한 아늑함’. 그 모순적인 느낌도 페파 오페라 구역에서만 느낄 수 있는 표현의 핵심이다.

## 최고의 음향, 역사적 작품의 초연지

정문에는 과테·실러·세이스미어·스포플레스·풀리에르 등의 상이 장식되어 있고, 바로 앞 광장에는 ‘과학왕’ 요한의 기마상이 있다. 이러한 페퍼 오페라 구역은 예술과 과학이 어우러진 드레스덴의 본원기지를 대변한다. 국장 속 음향도 예술과 과학의 결합을 이해할 만한 척도이다. 예술과 과학의 결합을 이해하는 페퍼 오페라 힐라노(밀라노)가 차지한다. 관객석에 들어서면 무대 뒤에 달린 시계도 독특한 시그니처다. 이 시계는 오늘날에도 작동하며 5분 단위로 시간을 알려준다.

페퍼의 친구였던 바그너(1813-1883)는 페퍼 오페라의 감독을 맡으며 독일 남만주의를 이용했다. 바그너는 《리엔자》(1842), 《방황하는 네덜란드인》(1843), 《탄호이저》(1845)를 정파 오페라에서 발표했다. 1849년 드레스덴 5월 혁명 때 바그너는 페퍼의 스크립트 페포를 페포 카리를 누비기도 했다. 하지만 혁당 후드차로 세포영장이 발부되자 하반간 망명길에 올라야만 했다.

같은 시기에 슈만 부부도 이곳에 살았다. 그들이 이곳에서 남친 악작 은 피아노 협주곡(1845) 초연 시 페리라가 초연자로 나섰다. 드레스덴과 페퍼 오페라는 츠브라우스(1864-1919)의 주요 창작이 초연된 성지이기도 하다. 《살로메》(1905), 《엘레자르》(1908), 《엘마리 기사》(1911), 《알프스 교황》(1915), 《인터메조》(1924), 《아침드라 텔레나》(1928), 《아라벨라》(1933), 《없는 여인》(1936), 《다른네이》(1938) 등이 초연되었다.

## ドレス덴 필과 한쪽 어깨를 담당하는, 문화공연

18세기와 19세기를 지나 20세기에 이르면 문화공연(Kulturtage)과 풍물(플란드)이 나온다. 드레스덴 필하모닉이 강주하는 곳으로, 페퍼 오페라에서 노랫동 걸을 드러내는 경도엔 달는 곳에 있다. 가는 길극에

선 작품을 다스린 베링 가문의 군주들이 보사원 ‘군주와 풍물’ 애호도 만들 수 있다. 마이센 도자기로 유명했던 드레스덴의 도자기 타일 2만 5천장을 봐 만든 역할.

문화공연은 1869년 구동축 시장에 개관했다. 풍물에 들어서면 유리창 건너편으로는 성모교회가 보인다. 시계 대전시 풍물으로 그물린 벽들로 해관한 교회다. 문화공연은 구시가지의 고즈넉한 풍경을 해친다는 비단도 놀랐을 정도로 현대식 외관을 지니고 있다. 주위 경관에 비해 차가운 위험과 디자인에는 사족과 예술과 문화로 경쟁했던 들판 시장과 문화를 냉정하게 남아있다. 건물의 외관에 붙은 등록시설의 변화는 그러한 시기를 대변하는 듯하다.

신축을 통해 2017년 4월에 제4대관인 아곤은 종합공연장에서 빙아트 스타필드 콘서트홀로 탈바꿈했다. 보다 명묘한 드레스덴 필(Festival)의 음향도 얻었다. 선도적으로 이탈리아 음악을 수용하면 18세기의 드레스덴처럼, 오늘날 이곳은 기쁨과 웃음을 전파하는 최근 유명 차체자와 오케스트리가 거의 연일 방문하며 드레스덴의 기악문화를 발전시키고 있는 현진 차체자도 같다. 페퍼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함께라면, 문화공연은 플레이어 콘서트에 주목하여 드레스덴의 음악적 기류를 양껏 하고 있는 생이다. 함께 불어있는 드레스덴 하우스 도서관에서도 문화의 예술에 대한 강연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 음악에서 살짝 뺏거나도 문화예술의 매력이 보이는 곳

드레스덴은 모란 건물들이 주는 차분하고 차분하고 기운과 물리 1년 내내 브라운 문화예술 축제로 도시가 들썩인다. 시계 따르면 벽돌관이 52개, 미술관(미술관)이 40여 개, 예술극장이 37개, 도서관이 80개 내린다. 1978년에 설립되어 5·6월에 개최되는 드레스덴 음악페스티벌은 그중 22개 명소에서 열리킨다. 페리스트 판 보글리가 예술감독을 맡고 있다. 세계적인 차체자 콘서트로 손꼽히는 디시랜드 페리스트벌도 열린다. 매년 50만여 명의 패스 티켓이 다녀간다. 콘서트와 악주가 어우러지는 BRN 페리스트벌과 축제에서 가장 오래된 크리스마스 시장으로 손꼽히는 슈프리팅마이크로드도 열린다.

제2차 세계대전 시 폭격으로 훤히 무너졌던 드레스덴. 해방 이후 한 대식 문화로 새 역사가 펼쳐온 베리 페리 텔리 그들이 나비한 벙행은 전통과 과거의 시간이었다. 그래서 드레스덴은 오늘날 고즈넉한 조식과 예술지화되어 있다. 하지만 오늘날 이곳은 유럽의 ‘실리콘 산지(Silicon Saxony)’로 불리며 20세기 공업도시로서의 에너지와 명성을 21세기적으로 펼친 중이다. 실리콘 산지에서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드레스덴이 속한 작센의 뮌데 베스니를 합친 데 ‘실체로 풍물’에서 구시가지로 돌아가는 길목에 세워진 현대식 음식들이 아도식품 현주소를 대변한다. 한마디로 드레스덴은 전통과 현대문화가 접을 맞추고 예술과 과학이 조용하고 있는 드시다.

교: 슈트라스부르거 20



SLUB

Wir führen Wissen.



Dresdner  
Philharmonie

## 바이올리니스트 율리아 피셔의 위상



요즘 들어 율리아 피셔가 부쩍 자주 한국 무대를 찾아오고 있다. 바이올린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에겐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 3월 런던 필하모닉의 내한공연 당시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참신하게 해석해내며 강한 인상을 남긴 율리아 피셔는, 7월에는 다시 드레스덴 필하모닉과 함께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선보인다. 멘델스존과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두 곡 모두 '3대 바이올린 협주곡'에 속하는 주요 바이올린 레퍼토리로,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설득력 있게 연주하기 어려운 곡이지만, 지난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연주에 비추어볼 때 이번 드레스덴 필하모닉 내한공연에서 윤리아 피셔는 다시금 새롭고 매혹적인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 연주를 펼쳐 보이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 10대의 나이에 바흐를 마스터하고 20대에 파가니니를 뛰어넘은 음악가

율리아 피셔는 매우 조숙한 음악가다. 오래전 그녀가 10대 소녀일 당시 녹음한 바흐의 음반을 처음 들었을 때의 놀라움은 아직도 생생하다. 잘 다듬어진 톤, 명확하고 섬세한 프레이징, 세련된 감정 표현을 담은 그 연주는 10대 소녀의 연주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무르익었다고 할 정도였다. 어린 나이부터 습득할 수 있었던 음악작품에 대한 통찰력과 안목, 그것은 거저 얻어진 것은 아닌 듯하다. 그녀는 이미 매우 어린 시절부터 음악작품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방식에 익숙할 수밖에 없는 음악환경 속에 자라났다.

음악가 집안에서 성장한 윤리아 피셔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첼로로 연주하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기에 그녀에게 음악은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일상'이었다. 악보를 보고 해석하는 일 또한 그녀에겐 숙제와 같이 부담스러운 일이 아닌 듯하다. 그녀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바이올린 협주곡을 공부할 때 당연히 바이올린 독주 악보뿐 아니라 오케스트라의 다른 파트의 악보들도 모두 연주해보며 작품을 파악하는 건 기본이다.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를 녹음하기 훨씬 전에도 피셔는 오케스트라의 모든 파트를 익혔을 뿐 아니라 이 곡의 첼로로 파트까지 공부했다고 하니 음악작품에 대한 그녀의 접근은 전체적일뿐 아니라, 또한 남다를 수밖에 없다. 작품의 핵심을 파악하고 전체 성부의 움직임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주자만이 자신의 방식대로 작품을 설득력 있게 연주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일찍이 10대의 나이에 바흐의 음악을 자연스럽게 체득한 윤리아 피셔는 지난 2010년에 발매한 파가니니 무반주 바이올린 카프리스 음반을 통해 파가니니 음악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연주 방식을 선보이며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녀는 파가니니의 음악 속에서 의외의 서정성을 이끌어내며 악마적이며 기교적인 작품이라 여겨지던 파가니니의 무반주 바이올린 카프리스를 쇼팽의 녹턴만큼이나 감미롭고 듣기 좋은 음악으로 재탄생시켰다. 이는 작품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통해 파가니니 음악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에서 벗어날 용기가 있는 힘든 일이다.

사실 파가니니의 음악에는 이탈리아 벨칸토 오페라를 능가하는 서정성과 섬세한 남만주의 깃들어 있음에도 이를 잘 드러내기는 쉽지 않다. 무엇보다 기교적인 어려움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바이올리니스트들은 과장된 제스처와 악마적인 표현으로 기교적인 어려움을 감추려 하거나 테크닉의 정확성에 지나치게 집착하기도 한다. 하지만 피셔는 테크닉에 그다지 집착하지 않는 듯하다. 아니 그보다는 테크닉은 그녀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편이 더 나을 것 같다. 아무 의미 없이 꽉 지나가버릴 수도 있는 빠른 장식음에도 은근하고 세밀한 뉘앙스를 보태는 그녀의 음악적 감각은 일품이며, 악보에 적혀 있는 연주법을 고수하기보다는 악곡의 본질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연주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이를 반영해내는 그녀의 연주는 매우 특별하다. 그녀는 이미 20대의 나이에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라 불리는 파가니니를 넘어섰다.

###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넘나드는 균형감각

피셔가 넘어선 것은 파가니니뿐만은 아니다. 잘 알려져 있듯 피셔는 단지 바이올린만 연주하는 음악가가 아니라 피아노 연주에도 매우 뛰어난다. 뛰어난 그녀의 실력은 지난 2016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선보인 러사이틀에서 증명된 바 있다. 그날 공연에서 율리아 피셔는 앙코르로 선보인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5번에서 피아니스트로 변신하여 피아니스트 마틴 헬름핸과 나란히 앉아 흥겨운 연주를 들려주며 청중을 깜짝 놀라게 했다.

사실 피셔에게 피아노는 바이올린만큼이나 중요한 악기이다. 어쩌면 그녀에겐 피아노가 더 중요한 악기인지도 모른다. 네 살 때 처음으로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한 피셔는 얼마 후 피아니스트인 어머니로부터 피아노를 배우면서 피아노를 매우 좋아하게 됐지만, 그녀의 오빠가 피아노를 연주하므로 다른 악기를 연주하기 원했던 어머니의 소망에 따라 바이올린 연습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빠른 속도로 바이올린 연주에 숙달한 피셔는 12세가 되던 1995년에 예후디 메뉴힌 콩쿠르에 우승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바이올린의 연주 기교가 매우 뛰어났던 피셔는 처음엔 바이올린 비르투오소로 알려졌지만, 차츰 연주회와 음반을 통해 바이올린만큼 출중한 피아노 연주 솜씨를 선보이며 피아니스트로서도 알려지게 되었다.

성격이 매우 다른 두 가지 악기를 비슷한 수준으로 다룰 수 있다는 건 음악가로서는 매우 큰 장점이다. 바이올린이란 악기는 '선율악기'이며 톤을 중요시하고 감정 표현과 서정적인 경향을 보여준다. 반면 피아노는 단선율뿐 아니라 여러 성부를 연주할 수 있으며, 바이올린에 비해 작품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에 더 유리한 악기다. 바이올리니스트들은 대개 활을 고르게 쓰고 왼손의 비브라토를 잘 구사하여 톤을 아름답고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이 많기 때문에 작품 전체를 살펴볼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피아노는 건반을 누르면 확실하게 바로 그 음이 나는 악기이므로 보임이 불안정하여 스크래치가 날 걱정을 하지 않고 곧바로 음악작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의 더 상위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아마도 유틸리아 피셔가 바이올리니스트이면서도 마치 피아니스트처럼 좀 더 이성적이고 분석적으로 음악작품을 파악하고 새롭고 참신하게 해석해낼 수 있는 것은, 그녀가 피아니스트이기도 하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 독일 고전음악에서 빛나는 피셔의 바이올린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넘나드는 피셔의 균형감각은 어떤 작품에서나 빛을 발하지만, 특히 바흐와 모차르트, 슈베르트, 브람스 등 독일계 작곡가들의 고전적인 레퍼토리에서 더욱 강세를 보인다. 네덜란드 침버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한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음반을 들어 보면 마치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악기의 울림을 만들어내는 그녀의 연주가 무척 돋보인다. 부드럽게 마무리되는 프레이징과 투명한 음색은 모차르트 음악의 우아한 감성을 살려내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특히 그 자신이 작곡한 칸타타를 사용하는 점도 인상적이다.

슈베르트의 바이올린 작품들을 담은 두 장의 음반 역시 피셔가 과연 어떤 바이올리니스트인지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음반으로 꼽을 수 있다. 불필요한 템포 변화를 배제한 채 악보 자체에 충실히 그녀의 연주는 꾸밈없이 순수하지만, 그러면서도 슈베르트의 선율에 담긴 역동성이 잘 드러난다. 그래서 그녀의 슈베르트 연주를 듣고 있으면 어느새 그 활기와 추진력에 빠져들게 된다. 특히 바이올리니스트 사이에선 난곡으로 통하는 슈베르트의 환상곡 C장조에서 그녀는 슈베르트 선율의 깊은 맛을 잘 표현해내고 있어 그동안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이 곡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지난 2007년에 발매된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다니엘 멀리쇼트와 함께 연주한 이중협주곡 음반(Pentatone)에서 피셔는 날렵하면서도 압도적인 연주로 강한 인상을 전해준다.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의 부담스러운 슬로 도입부에서부터 그처럼 강렬하고 날렵한 연주로 듣는 이를 압도할 수 있는 바이올리니스트는 흔치 않다. 그녀의 음색은 충실하면서도 무겁지 않고 강하면서도 예민한데, 그 절묘한 이중성이 그녀의 바이올린 연주에 생기를 더해준다.

이번 드레스덴 필하모닉과의 협연 무대에서 유틸리아 피셔는 그녀의 장점이 잘 살아날 수 있는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그녀가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음반을 발매한지도 10년이 총쩍 넘은 지금, 아마도 이 곡에 대한 그녀의 관점도 새롭게 바뀌지 않았을까 싶다. 지난 3월 런던 필하모닉과의 협연 무대에서도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섬세하고 여성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통념을 깬 강력하고 화려한 연주로 청중을 사로잡았던 피셔는 아마도 이번 드레스덴 필하모닉과의 연주에서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에 대한 또 다른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 최은규 (음악칼럼니스트)

# SAMSUNG



미세먼지도  
바람도 소음도 걱정 없는  
우리 사이

**삼성 무풍큐브**  
X  
SHIN MORAE



작바람, 소음 걱정없는  
무풍 청정



미세먼지 걱정없는  
독보적 99.999% 필터시스템



공간에 따라 분리/결합이 자유로운  
큐브 디자인

미세먼지 관리 회사인 IQAir의 표준 기준 Colodraft가 있는 0.5m/s 미세먼지 바람을 무풍으로 Air으로 정의함. - '미세먼지 99.999% 제거'는 헤이브리드 집진필터와 0.5m/s 사이즈 미세먼지 김진호흡을 의미하며, 정드레 출입문 공기기에 한정. 필터를 한번 통과하는 경우에 대해 필터 통과 전후 미세먼지의 개수를 비교하여 제거 효율을 계산한 시험 압력 0.3m/s KPa 압력, 풍속 0.1m/s. 국제환경기관 Ibmib의 김증을 받은 자사 실험 결과이며, 실 사용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분리와 합체는 해당 모델에 한함.



**SLUB**  
Wir führen Wissen.



Dresdner  
Philharmonie

품격 높은 공연을 위한



## 공연관람 에티켓

### 공연 입장 시간을 지켜주세요.

공연 시작 10분 전까지 객석에 착석해 주세요.  
공연이 시작된 후에는 입장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소지품이 바닥에 떨어져 소리가 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콘서트홀 바닥은 풍부한 음향을 위해  
마룻바닥으로 구성되어 휴대폰, 프로그램북 등이  
떨어지면 큰 소음을 유발합니다.



### 공연장 내 음식물 및 음료 반입은 자제해 주세요.

음식을 냄새 및 소음은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소지품은 가급적 자리 밑에 놓아 주시고  
부피가 큰 짐은 물품 보관소에 맡겨주세요.



### 연주자와 관객의 집중에 방해가 되는 기침은 삼가 주세요.

기침이 심하신 분은 사전에  
안내원에게 사탕을 요청해주세요.



### 휴대폰은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작은 진동소리, 불빛도 연주자와  
주변 관객의 몰입을 방해합니다.  
더불어 공연실황 녹음 및 사진촬영도 불가합니다.



### 공연 입장 가능 연령을 지켜주세요.

본 공연은 중학생 이상 입장 가능합니다.  
동반한 자녀들도 성숙한 문화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공연관람 에티켓을  
숙지시켜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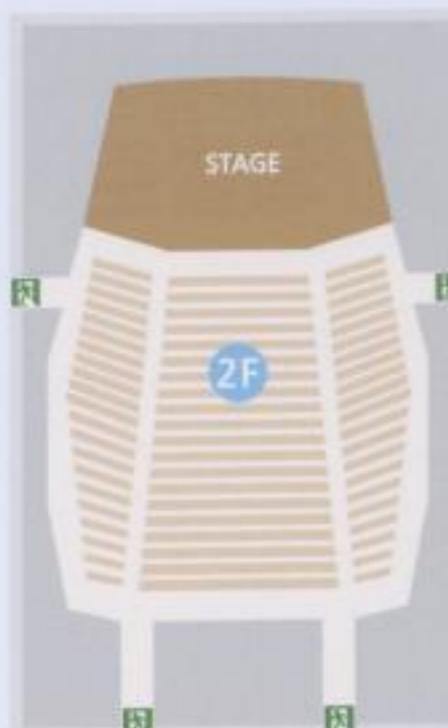
### 공연 중 음악감상에 방해가 되는 행동은 자제해 주세요.

공연 중 자리이동은 연주자와 다른 관객의  
집중도를 떨어뜨립니다. 이동 및 퇴장은 삼가주세요!  
협주곡, 교향곡처럼 몇 개의 악장으로 구성된 곡의 경우,  
악장 간 박수는 연주자의 집중에 방해가 됩니다.  
공연 중 지휘를 하거나, 손으로 박자를 타는 행동은  
옆 사람의 감상을 방해하니 삼가주세요!



### 박수와 환호는 감동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연주자의 연주를 마음으로 느껴주시고,  
큰 박수와 환호로 감동을 표현해 주세요!



## 비상대피 안내

### 화재발생시

가장 가까운 비상구와 계단을 통해 낮은 자세로 신속히 건물 밖으로 이동

###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히 근처 안내원에게 환자 발생 사실을 전달하고(구급차 상시 대기)  
호흡이 없을 경우, 기도(airway)를 확보하도록 선조치  
※ 자동 심장충격기(AED) 위치 : 2층 엘리베이터 앞

### 기타 상황 발생시

인재개발원 상황실로 연락(☎ 031-8031-3119)

실종아동전문기관과 삼성전자가 함께합니다.

# 실종아동 찾기 캠페인



김은지 (당시 만 4세, 여)

발생 일자 2002. 11. 12 (화), 현 21세

발생 장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동

신체 특징 - 오른쪽 다리와 아랫배 부분에 화상흉터

착의 사항 - 자주색 바지, 햄토리 운동화



김대현 (당시 만 3세, 남)

발생 일자 2003. 09. 05 (금), 현 19세

발생 장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신체 특징 - 키 99cm, 앞이마 눈썹에 찢어진 흉터, 배에 검은색 반점, 오른쪽 귀에 링귀고리,

착의 사항 - 앞가마 있음, 검정색 컷트

- 흰색 반바지, 곤색 스포츠샌들

## 실종아동 예방수칙을 꼭 기억하세요!

### 하나. 지문 사전등록 제도 이용하기

아동의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미리 등록하면 실종시 아동을 찾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등록 시 평균 38분/미등록 시 82시간 소요) \*경찰서, 안전 Dream 홈페이지 ([www.safe182.go.kr](http://www.safe182.go.kr)),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

### 둘. 아동의 정보와 최근 사진은 자주 업데이트하기

평소 아동의 신체 특징, 버릇, 키, 옷차림 등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 셋. 아동에게 이것만큼은 꼭 가르쳐 주세요.

집주소와 전화번호, 부모님 이름 등을 외우게 하시고, 밖에 나갈 때는 누구와 어디에 가는지 꼭 이야기하도록 교육해주세요.

### 넷. 아동이 실종되었다면 골든타임 '48시간'을 기억해주세요.

아동 실종의 경우 골든타임 48시간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48시간 내에 국번 없이 182번(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으로 신고해주세요.

자료  
제공

중앙입양원

실종아동전문기관

제보처

경찰청 국번없이 112